

여자의 마술..... 현주는 부드럽게 풀어요

현주도 매직스로 바꾸고 깜짝 놀랐어요.
늘 그날엔 좀 불편한 느낌이 있으려니 했었는데
매직스의 부드러움은 그날인지조차
잊어버리게 할 정도니까요.
비밀은 바로 매직커버!
여자를 감싸는 부드러움이 참 좋아요.

비밀은 매직커버!
매직스만의 비밀공법 매직커버. 생리혈이
흡수되는 부분을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처리하여 실크같이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이 매직커버가 부드러움의 비밀



76 82 37



'99 제 1회 월경 Festival

유혈남자

- 이순감, 세계 여성의 1/5이 생리중입니다.

일 시: 9월 10일 금요일 (사전행사 12시부터, 본행사 6시부터)

장 소: 고려대학교 대운동장

주최: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연합 여성문화기획 "불턱"



기획의글

나와서 같이 놀자!



내공프로그램을 마치고 사기충찬한 몇 명의 여자들.
뒷풀이 자리에서 우연히 월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생리할 때의 느낌, 불편함, 또는 그에 대한 금기들.
전혀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
그러나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유쾌한 나머지
그만 월경 페스티벌을 하기로 결정해 버린다.
'사람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싶다.'
배운대로 무조건 기획안부터 써서,
가본 적도 없는 기업체, 언론사에 다밀다.
그로부터 한 달.



이현옥(연세대학교 투입술·총기획)

우리는 지금 월경 페스티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몇 년 전 독일여행 중에 'Frauen Tag'이라는 행사에 참여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뒤로 언제나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와
서 다들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축제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목소리로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시도이다. 아직은 우리 위치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말걸기가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재미있게 이
야기하고 싶다.

끝으로 여성으로써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어려움속에서도, 후배들을 잊지 않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존경해마지 않
는 열혈 선배님들-이숙경, 변리나, 박혜경, 박홍주, 안혜성 선배님-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놀라우리만치 용감무쌍
하게 함께 일을 벌인 우리들 자신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낸다.

* Frauen Tag: 번역하면 '여성의 날'쯤 될 것 같다. 그 지역에 있는 종합 문화공간에서 한 달에 한번 열리는 행사로 이 행
사에는 여성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극장, 카페, 댄스홀이 연결되었는데, 극장에서는 여성영화를 상영하고, 카페에서는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고, 댄스홀에서는 춤을 출 수 있다.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모여서 이야기하고, 춤추고 싶은 사람은 춤추
고... 홀에서는 아이들, 아줌마, 드물게 할머니도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유쾌하고 인상적이어
서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딱히 그 행사를 생각하고 기획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하는 동안 왠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주어진 지면을 빌어 적는다.

월경을 하기까지

한여름에 월경이란...

선주영(서울시립대학교 총여학생회·홍보팀)

나에게 여름이란 항상 지루하고 몸의 진을 빼는 계절이다. 바닷가로 피서 가는 일도 그리 흥미롭지 못하다.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것은 잠남이 끼어들 틈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순간과 희미했던 실무엇이 내 손을 거쳐 구체적인 몸뚱아리를 드
러내기 시작할 때이다.

처음 4주간의 내공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아직은 낯선 얼굴들을 마주하고 "유혈남자"를 기획할 때의 기분은 좀 복잡한 것
이 아니었다. '내가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생각보다 커져버린 행사 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섞
여 다들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다들 벌여 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점점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라톤 회의가 끝나고 술을 마시면서 행사가 끝나고
각자의 학교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면 아마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한다.

우리가 1999년 여름에 저지른 일이 자랑스러운 건 비단 커다란 무대를 만들고 각종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되었기 때문
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 저기 켜져 있던 여학생들이 모여서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해 선배들에게 실무를 배우고 배운 것
을 같이 행사로 옮겨 만들면서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 그리고 그 공동의 경험을 통해 하나로 나란히 엮었다는 것은 든든한 즐
거움이었다.





'99 제 1회 월경 Festival

축하의글

그래,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또 한번 즐겁게 놀아보자

1.
뭐?
월경 페스티벌을 한다고?
벌써 그 때가 왔는가?
그렇다면 해보자.
지난 봄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끝이 났듯
이 축제도 아마 신나게 끝낼 수 있을 거다.
도대체 즐거운 일이 없는 때에
또 한번 창조적 에너지를 주고받을 일이?

2.
나라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여자는 늘 이등 시민이라고
억울하다고,
좀 공평해 보자고
좀 나누어 갖자고
좀 끼워 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성명서 내보아야
누가 앞을 만들어주는 일었고
꺼워주는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파해자들의 외침과
파해자들의 외침은 이제 그만,
됐다.
파워 페미니즘,
힘있고 즐거운 축제로 방향을 바꾼다
형식을 바꾼다.

3.
금기를 깨뜨리기,
월경에 대해 스스로 알아가기.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 자체로
금지를 당해온 자는 해방감을 느끼고
언어의 세계
기존의 질서는 뒤죽박죽이 된다.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가 불어넣어주는 힘은
금기시한 정도에 비례한다.
감격하게 금지된 것일수록
깨뜨림의 파문은 클 것이다.
금지한 자들로부터 또 다른 저항이 날아올 것이다.

조한 혜정(또하나의 문화 동인, 연세대 인문학부 교수)

그것을 유연하게 즐기는 것
그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어준다.

4.
월경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어야 한다는 사회에서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여자들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군대에 대해 말하려고 부추기는 사회에서
군대에 대해 말할 때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출산을 1.48시대.
20여년 만에 급속하게 노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
조만간 출산 장려책을 쓰지 않으면
나라의 앞길이 위태롭다 한다.
군가산점보다 출산 가산점?

모두를 동일한 존재
경직된 남자로 만들려는 사회
우린 그런 획일 사회를 벗어나고.
이 깊은 뜻을 저들이야 알리 없건만
우린 벌써 섣불리 내었다.

5.
내 친구 프리디는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그녀는 한 달을 생리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교수이며 사진예술가인 그는
생리통 주기를 사진작품으로 표현했다.
열리고 닫히고 흐르고 고이고...
그 작품은 지금 인터넷에 올라있다.

체함을 말할 자유.
당사가가 이야기 하기
고통 받는 자가 직접 이야기 하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남의 체함을 대변해주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는 학교
그런 학교에 나는 다니고 싶다.
그런 나라에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이미 잠시 잠시씩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
사실 우린 지금 그곳으로 가는 길이다.

1999년 9월 10일 월경축제에 부쳐

이숙경, 안혜성, 박흥주(99 내광프로그램 기획팀)

지난 여름은 혹독하리만치 무더웠다. 폭염에 찌든 8월의 저녁에 서른명의 여자들이 모여 앉아 '내광'을 쬔기 위해 밤늦도록 땀을 흘리며 초가을저녁에 상쾌한 축제를 마련했다. 월경페스티벌은 '불턱' 사람들의 뜨거웠던 여름이 보내는 축복이다. 나는 후배들이 만들어낸 축제에 초대받았다. 그들은 나의 초대에 이렇게 멋진 응답을 보내온 것이다. 내가 가진 소망과 기대, 그리고 재능으로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어준 후배들에게 고맙고, 우리가 함께 나눈 밥과 반찬을 이렇게 멋진 에너지로 분출하는 것에 다시 고맙다.

이 축제는 80년대 학번인 삼십대 여성운동가와 20대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의 예정된 만남이며, 보다 힘있는 여성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우리들, 다르지만 그 다양함으로 축제를 벌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함께 공유했다. 그리고 그 공유의 기억이 우리를 힘있게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월경축제에 환호하며

고은광순(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우리나라의 TV에서 생리대광고가 시작된 것은 1995년 1월 1일 방송윤리위원회의 규제가 풀리면서부터이다. 그전까지는 '재수없다' 등의 여론을 '존중' 하느라 광고를 만들 수 없었던. 월경을 불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 보아 월경중 여성이 앉았던 자리, 그 위의 물건에 닿았던 사람조차 시간이 지나야 부정을 벗는 것으로 믿었던 (구약성서 레위기15) 원시적 사고가 불과 몇 해 전 까지도 한국에 남아있었다는 이야기다.

남계혈통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들의 순결은 '중요한 가치'였으므로 강조되고 강요되었지만 정작 여성의 몸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임신은 '남성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월경은 전적으로 '권력이 없는 여성의 몸'에 속한, 비천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남계가문의 대잇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종을 재창조하는, 생명을 품어안아 우주의 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다. 월경은 귀중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생명현상이다.

부계혈통제만을 고수하는 가부장제는 부모양계혈통제로 바뀌어야 하며 도구로서의 여성의 역할(족보, 가문 속의)은 폐기되어야 한다. 월경축제는 여성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제 월경축제를 통하여 월경은 '재수없는 불결한 것'이라는 남성우월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비로소 해방을 맞게 되었다. 월경 축제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찬사를 보낸다.

사랑으로...



'99 제 1회 월경 Festival

PROGRAM



Opening

드럼쇼 / 심진수

파워풀한 드럼의 소리로 신나게 축제를 엿니다.



영상물 1

- 드러내라

봉근웅



축하공연: 열혈 핑크키드,
푸른 핑크벌레

포인트: 그가 생리를
하던 날



축하공연: 김정은

임신 9개월의 여성이 노래하는 월경은?

곡목: 선택, 해야



영상물 2

- 초경에서 완경까지

봉근웅

초경하는 소녀부터 완경기 아줌마까지, 세대를 뛰어넘는 월경의 경험



Free Speech zone

그 동안 말할 수 없었던 월경,
이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자구요.



Performance "신에게는 딸이 없다?"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월경의 기를 보여드립니다.



축하공연: 크라이닝 넷

곡목: 갈매기, 말달리자

1 "정상적인 월경이란? 1"

생리주기가 아주 정확하고 규칙적인 여성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후가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맘에 부치는 상황을 겪거나 하면 생리주기는 갑자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략)... 주기는 대체로 20일에서 30일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생리일을 대체로 이틀~여드레 사이 구요. 그러나, 주기가 더 길거나 짧아도 거의 규칙적이거나 하면 정상입니다. (출처: 섹스북)



“아저씨, 아저씨, 생리통 약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리통 약은 없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생리통약은 가짜이다. 생리통 약이라고 그것을 산 여성을 있다면, 속은 것이다.

이쯤에서 분명, ‘아~ 난, 매달 한 알씩 약을 먹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자. 그것은 생리통을 잊게 해주는 약일 뿐, 생리통을 없애는 약은 아니다. 두통, 치통에 덩으로 달린 그저 많은 통증 중의 하나로 취급될 뿐이다. 생리통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도 없다. 많은 여성들이 생리 기간 동안 통증을 겪고, 진통제를 먹거나 그도 아니면, 내성을 두려워하여 그저 참는다. 그것도 어다가 아프다고 할 도 한 마디 못 하면서 말이다.

그날이 오면

“폐경기는 없다”

폐경은 말 그대로 ‘월경을 닫는다’는 뜻이다. 초경과 폐경, 이상하지 않은가? 시작한 월경은 끝나지 않고 닫힌다. 월경을 끝낸 여성은 하나의 문을 이미 닫은 상태인 것이다. 왜 월경을 마친 “완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에일리 마친은 의학 교과서에 나타난 월경과 폐경을 설명하는 언어를 탁월하게 분석하여 의사, 해부학자, 일반 대중이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었는데, 그들은 월경은 임신에 실패한 것이고 폐경은 생식 기능이 끝난 것이라고 보았다. ... (중략) ...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 (중략) ... 월경과 폐경은 실패, 상실, 결핍과 허약이 아니라 정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출처: 『여자와 남자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

“생리전 증후군(PMS)란 무엇인가?”

생리학자들은 월경 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상적인 육체적 변화를 “월경 전 증후군”으로 한데 묶어서 그것을 하나의 장애, 즉 치료와 주의가 필요한 병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 (중략) ... 여성은 통증, 아픔, 비만, 부종, 두통 등으로 몸 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남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왜 여성의 기분 변화는 “증후군”이라고 하면서 남성의 기분 변화는 “정상적인 기복”이라고 하는가? 왜 여성은 “번덕스럽다”고 생각하고 남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왜 정상적인 기분 변화를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 (중략) ... 왜 남성의 변덕과 반사회적 행동을 호르몬으로 환원하는, “과다 테스토스테론 증후군” 또는 “비월경 불안정 장애”라는 정신 의학적 진단은 없는가?

(출처: 『여자와 남자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

“남자가 멘스를 한다면...”

남자가 멘스를 하고 여자는 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되면 분명 멘스란 부럽고도 자랑할 만한 남성적인 일이 될 것이다. ... (중략) ... 뒷골목 건달들은 “그치는 삼중 패드를 하고 있어.”라든지 “실은 다섯 개야.” 따위의 농담을 내놓지도 모른다. ... (중략) ... 의과대학들은 여성의 입학을 제한할 것이다. (여성들은 피를 처음 보고 기절할지도 모른다.) ... (중략) ... 달과 별들의 운행을 측정하는 생물학적인 능력이 없이 어떻게 여성들이 시간과 공간, 수리에 대한 고도의 감각을 요구하는 학문을 마스터할 수 있었는가?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어떻게 여성들이 우주의 리듬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혹은 매달 한 번씩 일어나는 상징적 죽음과 부활 없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말할 것이다.

(출처: 『여성명령: 경부에 대한 공상』)

스텝들은 말한다.



두입술 열종
짧은 시간에 많이 배워 써먹느라 그동안 꽤 일찍 잠을 잤다. 불안하고 불안해스럽지만, 엄청난 적자가 난다 해도 나는 기쁘리라. 옳은 일은 그 자체에 더 큰 용기를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Beyond 학살
“발목을 사건도 잊고 열심히 뛰었다. 사실 난 계산기를 두드렸다. 힘들었지만 나는 또 사람을 알아간다. 나 그리고 통신회를 하나 차렸다. ‘문이통산’이라고... 히힛

여위 진영
그저 행사가 빨리 끝나버리기만을 기다릴 만큼 처음 접하는 일들과 힘든 일이 많았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제를 말하고 그것을 가시적인 행사로까지 만들어낸다는 것... 이런 내 생애 최초의 경험이다. 고마워요...

두입술 유영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평생 우유 63팩 남짓의 생리혈을 쏟아낼 것이다. 행사 준비하며 유혈남자 탐이 쏟아낸 밤의 양도 그들이 앞으로 쏟아낼 생리혈의 양보다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다들 산나기 놀고 갔으면... -for the peace of menwombkind

시대총아 인디
찾아온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다가 갔으면 좋겠다. 다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되었지? 약까지 잔뜩 팔아주세요!

여위 수희

두입술 여주
모든 기획단들, 처음이라 미숙한데 정말 고생 많았고, 다음해에는 좀더 멋진 페스티벌을 만들어보자. 이번 페스티벌 진짜 잘 했으면 좋겠어.

관악 여우 혜승
난 아직도 우리가 월경 페스티벌을 치른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Beyond 바람
세상에 재미있는 일은 있어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관악 안
오옷,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다. 강남 중심가에서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바닥에 앉아 포스터를 붙였다. 파란불이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우린 포스터를 붙일 수 밖에 없었다. 교통경찰이 쳐다보고 있고 그 별종함... 흑흑흑, 그래도 기뻐요.

두입술 현옥
어떤 신세가 알았다. 지렛대를 제대로 쏘으면 세상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고대 여위 혜선
여성학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줄이야.

고마워요...

집려잡이

변리나 : 현. R문화기획단장
ANTI MISS-KOREA FESTIVAL 총기획자
박혜경 : 현. R문화기획단 기획실장
이숙경 : 여성학자, 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안혜성 : 현. 가족과 성 상담소 상담부장
박홍주 : 현. '여성과 사회' 편집위원

고문단

이귀주 : 고려대학교 여학생강
박태경 : KBS2 여성협회 회장
이계경 : 여성신문 대표
이혜경 : 여성문화예술기획 '마녀' 대표
유숙희 : 페미니스트 저널 이트 편집위원
고은광순 : 전국 여한회사 협회장

후원

고려대학교 학생지원과 / 개리캐리 / 도서출판 포하
나의 문화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 여성 민주회 / 여성 신문사 / 연세대학교
출판부 / KBS 여성협회 / 페미니스트 저널 이
프 / 피임 연구회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한국 여
성 연구회 / 한국 여한회사 협회 (가나다 순)

협찬: **문인협회** **대한법률** **에아오즈카** **SK Telecom** **미건물산**

『여성학과 의과대학 공동체비즈니스 모델이 생애 다함중 크리네, 여성도 도전을 주셨습니다』

무대미술 장승호



매일 나는

매일 나는
한통씩 먹는다?



매일은
간편하게 마신다!

과일이나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제 6대 영양소
식이성 섬유. 화이브-미니 1병에 식이성
섬유 5g. 양상추라면 1통이나 먹어야 합니다.
깔끔한 맛과 탄산의 특쓰는 산뜻함으로
바쁜 아침시간에도 간편하게 마시는
스마트한 식이성 섬유음료 화이브-미니!
기분은 물론 몸속까지 상쾌해집니다.


동아오츠키

이름개의 흥권

△부상의 011 TTL



▶ **내 통화외환에 맞춰 골라먹는 TIL요금**
TIL지식 할인요금 ▶ 통화외환이 10초와 9분 우리 대학교 캠퍼스와 압구정, 강남역, 신촌 등
 인근 420여 개 지역을 함께 최대 2곳까지 선택하면 10초와 9분!
TIL지정번호 할인요금 ▶ 특별할인 친구의 학과 번호(01.016.07.018.0995)을 꼭 4개 혹은
 친구 3명과 통화할 때 10초와 11.4초 심야(자정에)는 10초와 6분!
 ▶ 학생, 청년, 무료~나눔, TIL지정번호 아예 6시간 통화로 금액이 많이
 줄 200여 무료통화할 항목은 7개월도 50%까지 할인!

내 지갑속의 할인면허증
TCL Friday's,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베네치아 20~25% 할인 전국 58개 영화상영관에서 1,500원 할인되는 TTL 영아실 카드. 열변과 이용해도 한달 후다른 상품로 복 합지!

우리 아지트
TTL전용 멀티카메라 TTL ZONE은 음악, 영화감상, 게임, 인터넷이 공통, 현재 아벤트까지
연구한, 컴퓨터, 신축에서부터 대전, 대구, 부산, 광주까지 TTL로 전용아지트!

산나는 대학교 www.TTL.co.kr
내가 공부하는 대학교에 TTL컬리지-산나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선물과
풍성한 장학 혜택을 볼뿐 아니라 TTL포터로 활동도 왕창 할거야! 어기선 우리가 뭘!

[illegible]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쓰는 내키워로
 TT,만 있으면 재미있는 장난기 가득한 사이버로, 교육 무산되다와 서브는 기본! 재밌고
 물론 내키워로 제일 좋아하는 음악도 마음껏 골라 들을 수 있어 콘서트, 서브스 힐, 100회
 My Love 서브스 힐 2회 공연 관람!

결코 멈추지 않는 385일 연중무휴 파티
매일 매일 산다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생각해야 하다가 선물하기 품목? TTL 크루즈
TTL 산악생 환경부 TTL M.T 동양공사
TTL 개강 대동호 등 TTL 이벤트는 일년내내 줄여서 대기하고 있어. 이벤트/
이벤트 9월 이벤트는 세계 4대 유명 할딩사 대입할! 셋이 동치면 세계로 간다!
이벤트 9월 이벤트는 세계 4대 유명 할딩사 대입할! 셋이 동치면 세계로 간다!



싸이언 T22N 23,000원	모토로라 MC-8900T 13,000원	에니콜 SCH-730 77,000원
---------------------------------------	--	--

●25세이하 TTL가입시 위 가격에서 또 3만원 추가할인
●타 기종으로도 TTL가입가능

TTL은 SK텔레콤이 신세대를 위해 만든 새로운 이동전화서비스입니다.

본 연구는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의정부, 청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22개 시도에서 실시되었다.

77.은 SK텔레콤이 신세대를 위한 인도 사업에 이음전해서있습니다

[illegible][illegible]

(TTL

스무살의 아이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